

종말에 관해 예언하시는 예수님

종말적 사건과 대환난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24:1)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때 제자 중 한 사람이 성전 건물에 쓰인 돌들을 가리키며 예수님께 물었다고 되어 있는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도 이 엄청난 크기의 돌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려 약 120톤이나 되는 돌들이 너무도 완벽하고 꼭 맞게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돌과 돌 사이에 칼날도 넣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그 큰 돌들을 그렇게 완벽하게 쪼아서 딱 들어맞게 짜 맞추었는지는 오늘날에도 신비로 남아 있습니다. 헤롯이 그 거대한 돌들을 이용하여 서쪽 옹벽을 지은 공법은 오늘날에도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서쪽 벽 뿐만 아니라 옹벽 위 성전 대지(Temple Mount) 위에 헤롯이 재건한 성전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바로 이 성전을 가리키며 예수님께 감탄의 말을 건넸던 것이었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24:2)

예수님의 예언은 그로부터 약 40년 후에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A.D. 70년에 디도가 로마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입하여 예루살렘 성의 최후의 요새였던 헤롯 성전에 불을 질렀습니다. 사실 디도는 그 성전을 보전하려고 했지만 술취한 군인들이 디도의 명을 어기고 불화살을 쏘으로써 성전에 불을 질러 그 성전 안에서 저항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불에 타 죽었습니다. 성전이 불에 타는 동안 거대한 돌들의 틈 사이로 금이 녹아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로마군인들은 그 금을 얻기 위해 돌들을 하나씩 떼어 놓아 마침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예루살렘의 서쪽 벽(The Western Wall)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 성전 대지(Temple Mount)로 들어가는 입구의 동쪽 오른 쪽 아래를 내려다 보면 골짜기 아래에 옛 로마의 도로들이 발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돌들이 밀려서 떨어진 모양으로 어지럽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 돌들 중 몇 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전을 지탱하던 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운 채로 그 골짜기 아래 여기 저기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24:3)

예수님은 성전을 떠나 감람산으로 가셔서 거기에 앉으셨습니다. 제자들도 성전에서 동문으로 나와 기드론 계곡을 통과하여 감람산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감람산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 제자들이 조용히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사오리이까?” 이 일은 물론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여기에서 세상 끝(the end of the world)이란 물리적 세계,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계의 종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반역의 종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서기 전에 있을 인간의 허물과 죄의 시대의 끝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때 나타날 징조를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24:4-5)

사실 세대를 거듭해 오면서 자신이 세상의 구세주라고 주장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 것도 사실입니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스스로 메시아라고 주장하면서 많은 추종자들을 두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교 집단의 우두머리들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빗 버그는 하나님의 자녀들(The children of God)을, 문선명은 통일교도(Moonies)들을 이끌면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24:6)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대체로 평화로운 시기가 1년이면 13년간은 전쟁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국지전은 말세의 징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헬라어로 세계대전을 의미하며 세상 끝의 징조를 가리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24:7-8)

이런 것들이 주님의 재림의 징조들입니다. 세계대전은 우리가 두 번 겪었습니다. 제일차 세계대전은 1914년에 시작되었습니다. 기근에 관해서 살펴보면 오늘날 세계가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매년 천오백만 명이 굶어 죽거나 영양 실조에서 비롯된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진은 현재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재난의 시작(the beginning of sorrows)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재난(sorrows)이란 분만의 진통을 의미하는 헬라어를 번역한 말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24:9)

분명코 예수님의 제자들은 요한과 배반한 가롯 유다를 제외하고는 모두 순교하였습니다. 존 폭스(John Foxe)의 「순교자들의 책」(The Book of Martyrs)에 보면 역대 순교자들의 이름들과 그들이 순교당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물려받은 유산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 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24:10-12)

오늘날 우리는 불법이 성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24:13)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24:14)

가까운 미래에 예수께서 오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족속들이 많이 있다는 현실을 들어 의문을 제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 교회가 설립된 지 약 30년 후에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도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라고 썼는데, 여기에서 “온 천하”라 함은 온 세계를 일컫는 말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의 시대에 이미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에는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지역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거의 대부분의 민족들이 이미 복음에 접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라고 하신 말씀이 온 세계에 천국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반드시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날 이 구절을 해외 선교 사역의 기치로 내거는 많은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기까지는 예수께서 재림하실 수 없다거나, 예수께서 다시 오시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선교의 팔을 온 세계에 뻗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요한은 한 천사가 하늘 중앙을 날아가는데 그가 온 세상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갖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계 14:6). 여기에서 우리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천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계 14:7). 그러므로 복음은 온 세계에 전파될 것이며 이것은 대환난기의 끝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복음을 선포하는 자는 교회가 아니고 천사입니다. 어쨌든 제가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자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를 의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경고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을 날며 적그리스도를 섬기지 말 것과 그의 표를 받지 말 것을 경고하며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고 그의 표를 받는 모든 자들이 받을 임박한 저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위해서 교회가 반드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이다 그 날에는 아이 밴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이다”(24:15-19)

예수님은 다니엘이 말한 멸망의 가증한 것에 대해 말씀하시고서 “읽는 자는 깨달으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멸망의 가증한 것에 대한 기사는 다니엘서 9장에 처음으로 나타납니다.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칠십 이레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여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레와 육십 이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를 것이며”(다니엘 9:24-25)

다니엘에게 임한 예언은 이스라엘 민족과 예루살렘 성을 위해 칠십 이레(490년)의 기한이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면 예루살렘 중건에 대한 명령으로부터 메시야가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레(7×7=49)와 육십이 이레(62×7=434)가 지난다고 했으니 모두 483년이 됩니다. 그러한 명령은 실제로 주전 445년에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 내려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예루살렘 중건에 대한 명령이 있는 지 483년 후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26절에 의하면 천사는 다니엘에게 메시야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실로 메시야가 끊어져 왕국을 받지 못하리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백성들이 흩어질 것이며 성읍과 성소의 종말이 홍수처럼 임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의 이 예언은 육십구 이레(69×7) 후에 유대 민족이 흩어지리라는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 서두에 이스라엘 백성과 그 거룩한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칠십 이레(70×7)로 기한을 정하였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는 한 차례의 7년이라는 기간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메시야는 483년 후에 오셨고 그는 끊어졌으며 왕국을 받지 못했습니다. 로마군이 침입하였고 유대인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직 성취되지 않은 7년의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장차 백성 중에 한 왕이 일어날 터인데 그가 이 최후의 세계제국의 지도자가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최후의 세계 제국이란 유럽의 10개국 연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지도자는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 짐승 등 성경 안에서 몇몇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데 일반적으로 적그리스도라고 불립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과 한 언약을 세울 것입니다. 이 언약을 통해 그는 메시야로 열렬히 환호받게 될 것입니다. 그 언약에는 틀림없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의 내용이 포함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이 대망하는 메시야는 그들의 성전을 재건하는 자이며 그들의 예배를 회복시킬 자라고 공공연하게 언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메시야로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인정받으려면 이런 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서의 예언에 따르면, 그는 7년 기간의 전 3년 반이 지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으로 걸어들어가 거룩한 곳에 서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선언함으로써 그곳을 더럽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2:4에서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20절에는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유대 백성에게 하신 유대식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짐승이요 불법의 사람인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쟁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큰 독수리의 날개를 주어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3년 반을 양육받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때 용은 이스라엘이 자기로부터 도망한 것을 알고 군사를 보내 그들을 추격할 것이나 땅이 입을 열어 그 군대를 삼켜 버릴 것입니다. 그들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3년 반 동안 보존될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 일을

두고 이사야서 26장에서 요르단 땅 곧 페트라에 대해 이르기를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라고 한 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 백성이 갈지어다 네 밀실이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여기서 ‘분노’라 함은 구약의 용어로 신약에서는 ‘환난’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예수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게 되는 때’라는 것은 이 7년 기간의 두번째 3년 반이 시작되는 때를 말하며, 유대인들이 급히 그곳에서 도망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갈 시간이 없으니 그냥 그대로 쉬지 말고 페트라로 달아나면 거기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리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면서 자기에 대해 예배할 것을 요구할 이 멸망의 가증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최후의 반역이며, 이때부터 인류의 역사는 비할 데 없이 견디기 어려운 ‘야곱의 환난의 때’로 휩쓸려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이 기간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넘치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이 세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이 기간이 바로 성경에서 말한 대환난 기간으로 1290일간 지속될 것입니다. 이 일은 요한계시록 6장부터 18장에 이르기까지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때에 될 일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땅에 남아 있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라는 사실 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 땅에 남아 있을 필요가 없도록 조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케 하시기 위해 세우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계가 지금까지 경험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다시 경험하지 못할 대환난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대환난이 이미 지나갔다고 하며,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된 일은 디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성전을 파괴한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디도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 이후로 대환난이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한은 이 사건 이후에 계시록을 기록하였으며 그것도 명백히 장차 일어날 일로 대환난을 묘사하였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4:1의 “이 일 후에”는 2장과 3장의 일곱 교회에 관한 일 이후라는 뜻입니다. 요한은 계시록 4:3 이후로는 보좌에 앉으신 이를 묘사하고 있으며, 5장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언급하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 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실 때 받으실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는 어린 양이 이 두루마리의 일곱 인 중에 첫번째 인을 떼기 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째 인을 떼실 때에 나온 흰 말을 탄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인데 그가 세상을 이기고 그 세상을 차지하려 하며 그 뒤를 전쟁과 흉년과 사망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대환난으로 진행되는데, 이것은 미래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날들에 관하여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24:22)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택하신 자들이란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그때에는 세계 도처에서 전쟁이 발발하고 환난이 극심하여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24:23-24)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리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적그리스도의 수하에 있는 자들로서 온 세상으로 하여금 그를 섬기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거짓 메시아와 거짓 선지자가 온 세계로 하여금 거짓 메시아를 믿고 경배하도록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이들은 큰 이적들을 일으켜 사람들을 속일 것입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도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 기적과 기사와 표적들을 더 믿는다면 그는 위험한 상태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는 모든 종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며 사람들을 속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하여 반복해서 “믿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심지어 선택된 자들까지도 속여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24:25-26)

여호와와의 증인들은 예수께서 1917년에 골방으로 재림하여 지금 세계를 다스리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지금 이미 천년 왕국 시대에 들어와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거짓 주장이라는 사실은 성경이 이 기간 중에 사단이 결박되리라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24: 27)

이 말씀이 골방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고 여겨집니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번개가 임하는 것처럼 비밀한 일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24:28)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는가를 해석하는 데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해석들이 서로 정반대로 대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해석은, 주검은 므깃도 계곡에서 벌어질 아마겟돈 전쟁으로 인해 살육당할 모든 시체들을 가리키며 독수리들이 와서 이 시체들을 마구 뜯어먹을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아닌게 아니라 계시록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을 불러 왕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 등 모든 고기들을 먹으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두번째 해석은 이와는 전혀 다릅니다. 주검은 예수님을 가리키며 독수리들은 성도들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즉 누가복음 17:37에 있듯이 제자들이 동쪽 하늘 끝에서 서쪽 하늘 끝까지 번개가 번쩍이듯 예수께서 임하시리라 하신 말씀에 의문을 갖고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맞으리이까’ 한 말에 대한 대답으로 시체 주변에 독수리들이

모이듯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곧 성도들이 모일 수 있을 것이다 하신 말씀이라는 해석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에 대한 해석들이 얼마나 다양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세상 끝날에 대한 표징과 예수님의 훈계

“그 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24:29)

태양이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등 온갖 천문학적 이변들이 대환난의 마지막 표징이 될 것입니다.

“그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24:30)

여호와와의 증인들은 이 구절을 아주 싫어하며 이 구절에 이르러서는 교묘하게 혼동시켜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말로는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셔서 골방에 계시는데 그들의 지도자 외에는 아무도 볼 수 없다고 하니 이 구절이 틀리든지 그들의 주장이 틀리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지도자들은 지금 예수님께 직접 교육을 받고 있으며 예수님은 그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신정(theocracy)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이러한 말은 성경에 비추어 볼 때 완전한 거짓입니다.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24:31)

환난 후 예수 재림설(Post-Tribulation Theory)은 예수께서 대환난이 끝나기까지는 교회를 끌어올리시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주요 근거 구절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항상 간과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의하면 교회가 영광 가운데 들림받을 때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는 항상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팔과 요한계시록의 일곱째 천사의 나팔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을 마지막 나팔이라고 부르는데, 계시록의 일곱째 나팔은 계시록의 마지막 나팔이기 때문에 혼동하는 모양입니다. 계시록에는 일곱 천사가 있어서 일곱 번의 나팔을 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계시록의 일곱째 천사의 나팔은 화를 부르는 나팔이요 하나님의 나팔은 교회를 영광 가운데 불러 상 주시려는 나팔이기 때문에 전혀 다릅니다. 이 특별한 구절(31절)은 예수님이 구약의 세 구절을 하나로 모아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구약의 세 구절에 따르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분의 왕국을 확고히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만방에서 다시 한 번 그들의 땅으로 불러모아 그들을 한 번 더 영화롭게 하시리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30:3-4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네 포로를 돌리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흠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의 쫓겨 간 자들이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고 특별히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와 마태복음 24:31의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를 비교해 보십시오. 또한 이사야 27:12-13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부르실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일하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따는 것같이 너희를 일일이 모으시리라 그 날에 큰 나팔을 울려 불리니 앗수르 땅에서 과멸케 된 자와 애굽 땅에서 쫓겨난 자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이사야 27:13의 큰 나팔 소리는 바로 마태복음 24:31에서 예수께서 언급하신 그 나팔 소리입니다. 또한 이사야 11:12에서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니”라고 말씀하신 것도 같은 예언에 해당됩니다. 여기서도 ‘사방에서’라는 말이 마태복음과 유사하게 쓰인 것에 유의하십시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성경 구절들에 의하면 택한 자는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택함받은 유대인들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24:32-33)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될 때, 즉 세계 대전, 전염병, 지진, 거짓 그리스도, 환난 등을 자주 보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야 합니다. 무화과나무는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2절의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마지막 표징으로서 이스라엘의 건국을 예언하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러한 표징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24:34)

이 말씀은 이러한 표징들이 나타나는 세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24:35-36)

재림의 정확한 날과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이 마태복음 24:36부터 계속적으로 일관성있게 다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날과 그 시각을 안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비성경적인 가정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24:37 -39)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직전까지 세상 사람들은 평상시에 하던 일들을 그대로 하고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노아의 때에 사람들은 홍수가 와서 그들을 쓸어버릴 때까지 몰랐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과 이 세상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바로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알지 못할 것입니다. 강조점은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사람들의 당하게 될 놀라움입니다.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쓸어가버리기까지 그들은 알지 못하였는데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는 사실입니다.

“그 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테러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테러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24:40-41)

이에 대해서도 두 가지 서로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첫번째 해석은 데려감을 당하는 것이 심판받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데려감을 당한 자는 불행한 자요 남겨진 자가 행복한 자라는 것입니다. 다른 해석은, 데려감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끌려 올려감을 가리키며 남겨진 자는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해석입니다. 이 상반된 두 견해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되어 어느 경계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24:42-44)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경악하는 가운데 재림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실제로 오실 때까지 그 시각을 아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42-44절에서 예수님은 이중으로 강조하시며 명령하셨습니다. “깨어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다”(24:45-46)

무엇을 하는 것을 보면 복이 있으리라고 하십니까? 주인 집의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주는 일입니다. 즉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돕는 일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을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앓으리라”(24:47-51)

예수님이 더디 오신다고 말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십니다. 그 누구라도 만일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후에야만 교회를 부르러 오실 것이라고 말한다면, 즉 근본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보고 또 대환난을 겪고 나서야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말한다면 이것 역시 예수님이 더디 오시리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의 주장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코 너희가 그 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특정한 사건들이 일어난 후에야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일에 진정한 자극제가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나태함을 유발하는 것입니다.